

# 한국의 매운맛, 말레이시아를 사로잡다

말레이시아사무소

## 말레이시아를 사로잡은 한국 치킨

- 지금 말레이시아에는 한국의 매운맛 열풍이 한창이다. 한국의 매운맛이 맵고 달고 자극적인 맛을 선호하는 말레이시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 특히 한국의 유명 치킨 브랜드인 교촌치킨은 허니소스와 매운소스로 현지인들의 입맛을 공략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현지인들의 입맛에 걸맞은 한국식 치킨메뉴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아웃닭(OutDark)은 최근 데사파크에 3호점을 열어 말레이시아 전역으로 매장을 확장해가고 있다.

##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한국식 매운맛

- 한국의 매운맛 열풍은 말레이시아 식품업계에 새로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KFC, 맥도널드 등의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다양한 현지 식당들이 한국식을 표방한 메뉴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말레이시아 KFC에서는 한국식 양념치킨과 유사한 'Spicy Korean Crunch'를 판매했다. KFC는 일곱 가지의 고추 양념과 참깨로 한국의 양념치킨 맛을 재현했다면서 'The Hottest Thing from Korea'라는 문구로 마케팅을 펼쳤다.



- 진출국의 식문화 특성을 중요시하는 맥도널드는 한국의 ‘불고기버거’, 일본의 ‘돈가스버거’, 프랑스의 ‘맥바게트’와 같이 국가별 한정메뉴를 출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맥도널드에서는 이례적으로 김치양념을 바른 소고기패티, 한국음식 특유의 매운 소스를 가미한 ‘Spicy Korean Burger’를 출시했다.

- 도미노피자에서는 한국식 매운맛과 단맛을 가미한 ‘Samyang Pizza’를 출시했다. 또한, Ayam(닭고기)과 ‘안녕하세요’를 합성한 ‘Ayam-haseyo’라는 치킨잉 사이드메뉴도 판매하고 있다.



### 전통 한식보다는 현지화 메뉴 출시에 중점

- 한국음식은 한류열풍과 더불어 말레이시아인들에게 하나의 트렌드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점에서 한국의 매운맛을 콘셉트로 한 제품을 선보인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의 문화와 그들의 입맛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통적인 한식을 고집하기보다는 한국적인 요소를 가미한 현지화 메뉴를 개발하여 현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1. 아웃닭 말레이시아 매장
2. 말레이시아 교촌치킨 매장
3. 맥도널드에서 판매한 ‘Spicy Korean Burger’
4. KFC에서 출시한 ‘Spicy Korean Crunch’
5. 도미노피자의 ‘Samyang Pizza’ 프로모션 현장

출처 : BMI Kazakhstan Food and Drink Report Q2 2018  
[www.malaysianfoodie.com](http://www.malaysianfoodie.com)  
[hypebeast.com](http://hypebeast.com)  
[www.thestar.com.my](http://www.thestar.com.my)